

작업복 세탁소 호응...“우리 산단에도 설치해 주오”

‘운영 4년째’ 하남산단 광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광클리닝’

2021년 1만2365장→올 상반기 4만1981장으로 이용 급증 타 산단은 ‘그림의 떡’...“노동자 편의 위해 산단 곳곳 설치될” 광주시 “2호점 개소도 좋지만 다른 산단 배달 확대가 현실적”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광클리닝’이 문을 연지 3년만에 세탁량이 5배 가량 늘었다. 다만 현재 하루 세탁량이 최대수용량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세탁소 추가개설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단 사업주들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 까지 광클리닝에서 세탁된 노동자 작업복은 15만

6952벌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설립 당시 1만 2365장(하루 평균 77장)에 그쳤던 세탁수량은 2022년 3만 9142장(163장), 2023년 6만 3464장(260장)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기름때 등이 묻은 노동자 작업복 4만 1981장(274장)이 이곳에 맡겨졌다. 기름때, 유해물질 등이 묻어있는 작업복은 일반 세탁소에서는 받아주지도 않고, 작업복에서 흘러

나온 유해물질이 식구들 옷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노동자들은 항상 걱정이 앞섰다. 이에 김해·장원·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광주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문을 열게 됐다. 매년 세탁량이 2배 가량씩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보다 뒤늦게 시작한 전남은 1년 새 2곳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추가로 문을 연 반면 광주는 1호점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아쉬움은 크다. 광주지역 11개 산단 중에 하남산단에만 설치돼 다른 산단에서는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반면 여수산단과 영암산단에 이어 올해 10월에는 순천 울촌-해룡산단(조례동 근로복지문화센터)에 3호점이 문을 연다. 세탁소 확충을 염두에 둔 광주시의 고민도 깊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지역민과 환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광주시는 빛그린산단 노사동반산단지원센터 내에 2호점 문을 열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1호점의 이용자 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보류했다. 하남산단에는 총 2만 1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지만 현재 광주시 노동자 세탁소 세탁량은 하루 평균 300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또 1호점은 하루 최대 1000장가량 가능하지만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 이유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최대 사용량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2호점 개소보다는 1호점의 세탁배달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사업주들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는 의견

을 내고 있다. 춘추복과 하복은 각 400원, 동복과 특수복은 각 800원으로 세탁비가 저렴하지만 매일 노동자가 전체 비용을 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실제 현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이용시 노동자의 비용 부담은 각 공장별로 상이하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업주가 일정 수준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세탁소 이용역시 사업주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개소에 앞장서 온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노동자 세탁소는 노동자들의 복지와 건강권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 노동자 조식지원센터가 하루 수수료 300명밖에 되지 않는 데도 2호점까지 열었다는 노동자 세탁소도 광주지역 산단 곳곳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들을 고려해 사업주들이 노동자 세탁소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디안 기자 kdi@



명절 끝 ‘쓰레기 전쟁’ 시작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월출동 재활용선별장에서 작업자들이 재활용품 등을 분류작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18회 오월어머니상 수상자 선정

박성연 어니음악창고 대표·영화 ‘송암동’ 제작 ㈜훈프로

제18회 오월어머니상 수상자로 박성연 어니음악창고 대표(개인상)와 ㈜훈프로 대표 이조훈·단체상)가 각각 선정됐다. (사)오월어머니집은 제18회 오월어머니상 수상자를 19일 발표했다. 박성연 대표는 음악감독과 작곡 활동으로 5·18정신 재조명에 앞장섰다. 박 대표는 자작한 ‘오월 기다림’ 노래를 오월어머니집에 재능기부했으며, 오월어머니들이 제 44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전야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단체상을 수상한 ㈜훈프로는 1980년 5월을 배경으로 한 영화 ‘송암동’을 제작해 5·18의 아픔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진상규명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월어머니상은 1980년 5월, 또는 이후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오월정신계승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조명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절반으로 ‘뚝’

지난해 99.27%서 올 8월 54.15%...감소폭 전국 최고

의정감등 영향으로 전남대병원 응급실 가동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 갑)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의 평균 응급실 가동률은 46.74%로, 지난해(70.56%)에 비해 23.82% 감소했다. 전남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은 지난해 99.27%에서 올해 8월 기준 54.15%까지 떨어졌다. 감소 폭은 45.12%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크다. 감소율은 경북대병원 44.70%, 부산대병원 44.10%, 전북대병원 39.40%, 충북대병원

30.70% 등 순이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해 가동률 39.83%에서 올해 21.12%로 줄어들어 감소율(18.71%)은 소폭이었으나, 가동률은 충북대병원(18.80%), 창원경상국립대병원(20.82%) 다음으로 낮았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입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례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놓고 있다”며 “의료대안 사태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지방 응급실 가동률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 ‘전국 최하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인상키로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제공하는 광주시 명예 수당이 전국 최하위라는 보도(6월 26일자 광주일보 7면)에 따라 광주시가 관련 수당을 인상키로 했다. 광주시는 최근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참전·보훈수당 등 지급액을 명시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급액과 시·자치구 간 부담 비율을 시와 자치구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자체 참전수당은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월 42만원)과 별개로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각각

예산을 부담해 지급한다. 개정안은 또 수당 지급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던 ‘미참전 공상군경’을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광주시의 월 참전·보훈수당 액수와 시·자치구 부담 비율이 보훈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보훈부는 올해 말까지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지급액을 8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참전 수당을 월 평균 10만 4000원씩 지급해 왔으며, 광주시 5개 자치구는 각각 2만 6000원씩 지급하는 데 그쳐 시·구 간 부담 비율이 8대 2로 기울어 있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역시

보훈대상자 5만원(광주시 4만원·자치구 1만원)으로 시와 구가 각각 8대 2 비율로 부담하고 있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보훈수당을 6만 5000원으로, 참전수당을 16만 9000원으로 인상하며, 시와 자치구 간 부담 비율도 7대 3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자치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부담 비율을 높여 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자치구의 참전·보훈수당 예산은 2024년 61억 3000만원(시 50억 6400만원·구 10억 6600만원), 2025년 84억 2500만원(시 61억 3800만원·구 22억 8700만원), 2026년 93억 4300만원(시 65억 8500만원·구 27억 5800만원) 등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 zgm**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손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숙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기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등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등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